

올림픽 특구 사업 내년 상반기 본격화

연말까지 종합계획 수립·내년 1월 정부에 지정 요청

도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 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특구 지정을 요청해 상반기 중 승인을 받아 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특구는 개최도시 3개 시·군을 중심으로 3개 권역, 6개 지구, 14개 사업 지구에 32.6km가 최종 검토되고 있다. 강릉의 경우 강릉문화올림픽 종합지구, 금진온천휴양기능지구 등 2개 지구, 녹색비즈니스·해양 휴양, 문화체육복합, 올림픽공원, 다운타운, 금진온천휴양 등 5개 사업 구역 5.04km다.

도와 각 시·군은 앞으로 동계올림

픽 특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특구종합계획안을 도보와 시보 등에 공고하고 26, 27일 이틀간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 12월14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국비 지원, 특례 적용, 인·허가 의제 처리,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최 도시로선 동계올림픽 도시 기능과 관광, 문화, 연구, 주거, 산업 기능이 복합된 동계올림픽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 민·외자 유치 촉진,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고달순기자

인제군 내년 예산 2,761억원 5.6% 증가

【인제】인제군은 2013년도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2,761억원을 편성해 인제군의회에 제출했다.

총예산 규모는 2,761억3,587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305억원으로 올해보다 2.9%, 특별회계는 456억원으로 22.1% 증액 편성됐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각종 공모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위생환경사업장 시설 보완, 마을하수도처리시설 확충, 흙탕물 오염저감사업비 등 정부예산 지원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축수산업 종사자

에 대한 소득기반 확충, 노인·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 민군협력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 추진되었던 오토데마파크 조성사업 등 각종 대형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시책 적극 발굴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신규투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

소양5교~천전삼거리 도로 4차선 확장

우석초교~석사사거리 구간 토양오염 조사 결과따라 추진

【춘천】춘천시 신북읍 소양5교부터 천전삼거리 간 4차선 도로 확장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춘천시는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주요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및 개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군도 16호선인 소양5교에서 천전삼거리 간 3.7km 구간 공사가 내년부터 진행된다. 이곳은 2004년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확장사업이

시작됐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장기간 진척이 없었다.

시는 3.7km 구간 가운데 소양5교부터 항공대 입구 간 1km를 우선 확장한다. 또 석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우석초교에서 석사사거리 간 4차로 개설공사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다음 달 중 나오는 석사동 611경차대 부지의 토양오염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시기가 최종 결정된다. 토양

오염이 없을 경우 국방부로부터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곧바로 도로 개설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토양오염이 나오면 캠프페이지의 경우처럼 정화작업으로 시간이 걸린다.

길이 300m의 도로가 개설되면, 국립춘천박물관 앞으로 우회하지 않고 석사사거리에서 애막골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또 김유정역 연결도로의 4차로 확장 공사도 내년에 마무리 된다. 이 구간은 2003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퇴계동 흙플러스에서 신남감리교회 입구 간 2.6km 중 2km가 완료된 상태다. 시는 내년에 20억원을 투입, 남은 600m 확장할 계획이다.

이성재 시 도로과장은 “온의동 닭갈비 거리에서 퇴계동 흙플러스 간 4차로 개설공사를 이달 중 발주해 내년 말까지 준공한다”며 “석사사거리에서 애막골 간 공사 여부는 다음 달 중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건설업 “응모작가 동반 협력업체만 공모 가능”

속보= 화천군이 4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수변테마조각공원’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의견(본지 11월 15일자 8면)이 제기된 가운데 건설업계도 입찰제한에 강한 불만을 터뜨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수변테마조각공원의 제안공모 공고에 명시된 ‘제1종 미술관을 등록한 실적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은 작가는 물론이고 시공업체 참가도 제한하는 입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참가 자격요건에 작가와 시

공 업체를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응모 작가와 동반 협력을 맺은 업체만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응모 방법부터 참가 자격까지 작가와 시공업체를 제한해 도내 시공업체들의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입찰공고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은 여러모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격의 제한을 둘러싼 작가들의 원성도 계속되고 있다.

도내 한 조각가는 “화천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각예술계의 거장을 모시기 위해 제1종 미술관 등록 유무를 명시한 것은 애초부터 상당수의 작가들을 원천봉쇄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화천군은 항간에 떠도는 작가 내정설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작가 역시 “현재 화천군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국의 국립대 미술학과와 미술협회 등에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투

명한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현 응모자들의 작품을 보면 누구 작품인지 알 수 밖에 없어 신뢰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화천군 관계자는 “시공업체 입찰의 경우 화천군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지자체들의 공모에서 시공업체를 명시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심사 역시 2번 유찰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만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춘천/최경식 kyungsik@kado.net

홍천군 내년 예산 3830억

올해보다 18% 증가

홍천군은 2013년 당초예산안을 올해보다 18% 증가한 3830억원으로 확정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6% 증가한 33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분야에 35%가 증가한 491억원으로 편성됐다.

홍천군은 내년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401억원이 증가됐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확충 53억원,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 28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6억원 등 국도비가 178억원 증가된 307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66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95억원, 사회복지

지분야 568억원, 환경보호분야 548억원, 수송및 교통분야 293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06억원, 문화및 관광분야 203억원 등으로 배분됐다.

구체적인 사업별 주요예산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 28억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6억원, 생태하천 복원 29억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69억원, 무궁화 수목원 조성 11억원, 오룡터널~홍천여중 도시계획도로 30억원, 관광산림 레포츠체험장 조성 8억원,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 10억원, 홍천9경 생태탐방로 조성 9억원, 홍천연봉 도서관 건립 17억원,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7억원 등이다.

한편 홍천군 2013년 당초예산안은 내달 20일 군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된다. 홍천/권재혁